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본격화

시, 전북개발공사와 3000여세대 주거단지 조성 실시협약 체결…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송천동 일원 천마지구를 3000여세대가 거주할 명품 주거단지로 공동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6월 말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양 기관이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의 업무분담과 사업비 정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천마지구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전주대대 이전부지는 전주시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고, 전주대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60% 정도의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

전주시는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우범기 전주시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또한 공동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을 사업면적 비율을 적용해 정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사격 소음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전주시 송천동 일원 전주대대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주대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됐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대대 이전부지 약 18만㎡를 포함한 44만6000㎡에 계획인구 6751명(2935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이어 2022년 8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됐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완료 예정인 2026년 말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주대대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단, 시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선행사업인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이전지역과 주변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 민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사업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개발공사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통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획득

전주시설공단, 공영주차장 2곳 '최우수시설' 추가 인증

한옥마을2 공영주차장과 비보이 공영주차장 등 전주 공영주차장 2곳이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이들 두 공영주차장이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제는 다중이용시설인 주차장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 인력 배치 현황과 통합관제실 운영현황, 비상벨 설치 여부, CCTV 화소, 주차장 조도 등 총 87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두 주차장은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상시 주차관리원 배치 △보안등 설치 △비상벨 운영 △CCTV 관리의 체계성 등으로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인증을 받은 홍산라이브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은 총 3곳으로 늘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운영 중인 다른 주차장들에 대해서도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획득을 추진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차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전주시설공단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현판이 붙은 비보이 공영주차장.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제는 주차장 범죄 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셉테드(CPTED)' 관점의 맞춤형 범죄예방책이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 안전 확보에 힘쓴 결과 인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식중독 예방 위한 초밥·육회 취급음식점 위생상담 지원

전주시 덕진구, 28일까지 89개소 대상 진행

여름 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오는 28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초밥, 육회 취급음식점을 89개소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상담을 지원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음식점에 직접 방문하여 식재료 검수부터 보관, 조리, 최종 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 진단하고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개인위생) 건강진단 실시 △(법적서류) 위생교육 수료 △(조리도구) 어류, 육류와 채소류 작업시 칼, 도마 구분사용 △(조리공정) 충분한 온도 및 시간 가열 △(보관공정) 식재료 구분 보관, 냉장고 청결 및 적정 온도 유지 △(조리장) 조리시설 파손 여부 및 청결관리 등이다.

이외에 식중독 간이세균측정기를 이용한 손, 칼, 도마, 냉장고 손잡이 등 오도 측정 검사를 하여 종업원들의 식중독 경각심을 높인다.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이 81점 이상으로 우수한 위생수준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상담한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개선 조치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식중독 예방 상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식중독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도 가정에서 식음료 취급과 보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식중독 예방 수칙 또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8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정서 안정과 마음의 쉼을 돕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마음치유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4주간 시민들의 마음을 힐링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8월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요가치유 △집단상담치유 △컬러치유 △치유타로 △독서치유 △향기치유 △아로마치유 △다도치유 △예술치유 △명상치유 △숲치유 △수묵치유 △미술심리치유 △원예치유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집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같은 고민을 가진 참여자들이 그룹을 이뤄 상담을 진행하고, 그룹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 향상'과 '자기 이해와 성장'을 주제로 2개 프로그램이 신설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자아성취감 증진'을 주제로 4주 동안 진행되는 찾아가는 원예 치유프로그램은 덕진구 2곳(금암2동·호성동 주민센터)과 완산구 4곳(완산동·평화1동·삼천1동 주민센터·효자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된다.

원예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 달 동안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친 일상으로부터 위로와 힐링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기르게 된다.

8월 마음 치유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 또는 전화(063-281-8576)로 신청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마음치유센터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치유공간으로, 이번 8월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여름철 지친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탁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저소득 가구 임차료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시행중인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이후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지원금은 매월 말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 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